

2008년 무자년(戊子年) “풍요와 희망, 기회”



2008년은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 엄밀히 따지면 음력 정월 초하루인 2008년 2월7일부터 1년간이지만 이미 태양력에 더 익숙하게 된 지금은 2008년 1월1일을 쥐띠 해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0천간(天干) 12지지(地支)를 배합해 해수를 구별하는 간지법에서 띠 동물은 자축인묘(子丑寅卯)로 시작하는 지지로 표시하며, 무자년에서 자(子)는 바로 '쥐'를 의미한다.

쥐라고 하면 더러움이나 간사함의 상징처럼 통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쥐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봤다. 쥐띠 해를 풍요와 희망, 기회가 드는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食福)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했다.

쥐가 풍요 혹은 다산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는 까닭은 그 왕성한 번식력에 기인한다. 나아가 자(子)는 자(玆), 혹은 자(滋)와 음이 같아 '무성하다'거나 '씩이 트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했다.

쥐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해는 크지만 위협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다 해서 신령스런 동물로 간주되기도 했다. 서구 영화에서 지진 발생이나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앙을 예고할 때, 흔히 쥐가 떼지어 나타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쥐가 갖는 예지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쥐는 어려운 여건을 딛고서 살아남는 근면한 동물이다. 재물이나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우리네 민간전승에서 두루 나타난다.

12지지의 하나로서 쥐를 활용하는 전통은 이미 신라시대에 농후하게 나타나는데, 김유신 묘라든가 민애왕릉과 흥덕왕릉 등 지에서는 쥐를 형상화한 띠 동물상을 무덤 주위에 두르거나, 납석제(蠟石製) 쥐 조각을 무덤 안에 넣기도 했다. 흥덕왕릉 12지 신상 중에서 쥐만이 유일하게 천의(天衣)를 걸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쥐가 모자를 씹으면 재물을 얻게 된다'거나 '쥐가 방안에서 쏘다니면 귀한 손님이 온다' 했으며, '쥐가 집안에서 흙을 파서 쌓으면 부자가 된다' 고도 하고 '쥐띠가 밤에 나면 잘 산다' 고 했는데, 부디 쥐띠 새해에는 이런 쥐들만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